KIA 최원준 '홈런 바통'…윌 크로우 4이닝 '퍼펙트'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가 11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시범경기 3차전에서 선발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한화와 시범경기 3-0 완승…윌, 무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 활약
최형우·소크라테스 등 3경기 7개 홈런…오늘 한화 류현진 상대

KIA 타이거즈가 11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시범경기 3차전에서 3-0 승리를 거뒀다.

최원준이 우측 담장을 넘기며 시범경기 홈런 타자 대열에 가세했고, 시범경기 첫 등판에 나선 크로우는 4이닝 퍼펙트로 눈길을 끌었다.

'호랑이 군단'의 홈런 릴레이가 이어졌다. KIA는 지난 9일 NC와의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무려 5개의 홈런을 터트리면서 파워를 과시했다.

최형우를 시작으로 이우성, 소크라테스 브리토, 서건창이 담장을 넘겼고 김호령은 그라운드 홈런을 장식했다. 10일에는 황대인이 홈런을 치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11일에는 최원준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날 2번 타자 겸 중견수로 출장한 최원준은 첫 타석에서 한화 선발 펠릭스 페냐를 상대로 손맛을 봤다. 볼 3개가 연달아 들어오면서 유리한 볼카운트를 맞은 최원준은 4구째 직구를 커트한 뒤 5구째 직구를 공략해 우측 담장을 넘겼다.

최원준의 솔로포로 선취점을 올린 KIA는 2회에는 최형우의 볼넷을 발판 삼아 추가점을 만들었다. 최형우가 1사에서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폭투 때 2루로 향했다. 김선빈이 유격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김태군이 중전적시타를 날리면서 최형우가 홈에 들어왔다.

이후 잠잠했던 KIA 타선이 2-0으로 앞선 9회 다시 한번 움직였다. 박찬호에 이어 투입된 박민이 9회 선두타자로 나와 주현상을 상대로 중전안타를 만들었다. 김호령과 김규성이 연속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나성범을 대신해 우익수로 들어갔던 박정우가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타점을 올렸다.

마운드에서는 크로우에 시선이 집중됐다.

1회 정은원을 2루 땅볼로 잡은 크로우는 문현빈을 1루 땅볼로 처리했다. 이어 안치홍과의 승부에서는 3구째 슬라이더로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삼진을 뽑아냈다.

2회도 깔끔했다. 노시환과의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2루 땅볼을 만든 크로우는 임종찬과 이진영을 연달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3회에는 박찬호가 아웃카운트 2개를 책임졌다. 하주석과 박상언의 타구가 유격수 박찬호 앞으로 향하면서 땅볼이 기록됐고, 크로우가 최인호와의 승부에서 다시 한번 헛스윙 삼진을 만들었다.

4회에는 1루수 이우성이 바빴다. 정은원과 문현빈의 타구를 이우성이 잡아 직접 베이스를 밟으면서 투아웃을 만들었다. 이어 안치홍을 유격수 땅볼로 요리하면서 크로우의 첫 등판이 4이닝 퍼펙트로 마무리됐다.

40개의 공으로 12명의 타자를 처리한 크로우는 4이닝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최고 구속 154㎞를 찍는 등 강속구를 바탕으로 체인지업, 슬라이더, 스위퍼 등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었다. 크로우의 스피드와 기교에 눌린 한화 타자들은 단 하나의 공도 외야로 보내지 못했다.

크로우에 이어 윤중현-김대유-박준표-최지민-정해영이 마운드에 올라 한화 타선을 막았다. 불펜진은 3개의 안타와 2개의 볼넷을 허용했지만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마무리 정해영은 15개의 공으로 삼자범퇴를 만들며 세이브를 기록했다. 이명기를 스탠딩 삼진으로 잡은 뒤 황영묵은 좌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웠다. 이어 6구째 포크볼로 김인환의 방망이를 끌어내 헛스윙 삼진을 만들면서 3-0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페냐를 공략해 담장을 넘긴 KIA는 12일에는 '괴물' 류현진을 상대로 홈런 릴레이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최원준이 11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시범경기 3차전에서 페냐를 상대로 우월 솔로포를 기록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손흥민 '1골 2도움' 4위 싸움 계속된다

시즌 공격 포인트 20개 돌파
토트넘, 애스턴 빌라에 3-0 완승

손흥민(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4위 경쟁 팀인 애스턴 빌라를 상대로 1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시즌 공격 포인트 20개 돌파와 함께 팀 승리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10일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2023-2024 EPL 2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3-0을 만드는 추가 골을 터뜨렸다.

3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약 2개월 만에 EPL 득점포 가동을 재개했던 손흥민은 2경기 연속 골 맛을 보며 시즌 14호 골을 기록했다.

여기에 손흥민은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8분 브레넌 존슨이 넣은 골을 어시스트했고, 후반 추가 시간 4분 티모 베르너가 넣은 팀의 4번째 골 때도 도움을 작성해 이날만 1골 2도움을 몰아쳤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14골 8도움을 올린 손흥민의 시즌 공격 포인트는 22개가 됐다.

리그 득점 순위에서 손흥민은 선두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18골)에게 4골 뒤진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고, 도움 순위에선 공동 1위와 2개 차인 공동 6위다.

아울러 손흥민은 2016-2017시즌부터 8시즌 연속으로 공식전 공격 포인트 20개를 돌파했다.

EPL로만 한정 지으면 2021-2022시즌(23골 9도움) 이후 2년 만에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다. 그는 지난 시즌엔 리그에서 10골 6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16개를 기록했다.

손흥민이 풀타임 활약한 토트넘은 리그 4위 애스턴 빌라와의 맞대결을 4-0으로 잡고 2연승을 수확했다. 손흥민은 10분의 추가 시간 중 4분가량이 흘렀을 땐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침착한 컷백으로 베르너의 골을 도와 애스턴 빌라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합뉴스

'탁구게이트' 이강인·손흥민 태국전 합류

황선홍 감독, 출전명단 발표…광주FC 정호연 첫 승선

'탁구게이트'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논란을 뒤로하고 손흥민(토트넘)과 다시 호흡을 맞춘다. '이정효호 황태자' 정호연(광주)은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이 1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에 나설 23명의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 발표를 앞두고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이름은 바로 이강인이다.

이강인은 지난 2월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캡틴'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탁구게이트' 논란을 일으켰다. '원팀'을 깬 이강인의 '하극상'에 비난 여론이 일었고, 이번 A매치 대표팀 선발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러나 황선홍 감독은 논란에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합작했었던 '잘 아는' 제자를 불러들였다.

이강인은 지난 6일 열린 레알 소시에다드(스페인)와의 2023-20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에서 킬리안 음바페의 골을 돕는 등 최근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애스턴 빌라와의 리그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하는 등 두 경기 연속골을 넣은 손흥민도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면서 런던에서 '화해샷'을 찍었던 두 사람이 다시 나란히 그라운드에 선다.

아시안게임에서 실력을 확인했던 정호연(광주FC)도 황선홍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프로 3년 차 정호연은 첫해부터 주전 자리를 차지하면서 광주의 '살림꾼' 역할을 해왔고, 올 시즌에도 대전으로 이적한 이순민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지우면서 '이정효호 황태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황선호호'는 18일 고양종합운동장에 소집된다. 이어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을 치르고, 26일 오후 9시 30분에는 장소를 바꿔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태국과 4차전을 치른다.

한편 이날 황선홍 감독은 서아시아축구연맹(WAFF) U-23 챔피언십에 나설 U-23 국가대표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광주 에이스 엄지성과 아론과의 트레이드로 대전에서 온 변준수가 23인에 포함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등록 선수 공동7위 광주FC '성적은 1위'

K리그 외국인 102명 등 936명…광주 39명

올 시즌 936명이 K리그 무대에서 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하나은행 K리그 2024' 정기 선수등록 결과를 발표했다. 8일까지 진행된 등록 결과 K리그1 498명, K리그2 447명 등 총 936명이 올 시즌 K리그에서 활약한다.

이는 등록이 완료된 934명과 등록 기간 내 국제이적확인서(ITC) 발급 신청까지 완료된 선수 2명을 포함한 숫자로 지난해 925명에 비해 11명이 증가했다.

국내 선수는 834명, 외국인 선수는 102명으로 집계됐다.

K리그1 12개 구단 평균 인원은 40.7명이며 광주FC는 39명으로 선수단이 구성됐다. 전북이 가장 많은 49명을 등록했고, 대전하나시티즌이 46명, 대구FC와 수원FC가 각각 4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K리그2 13개 구단의 구단당 평균 인원은 34.3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남드래곤즈는 34명이다. 수원삼성이 가장 많은 44명을 등록했고, 충남아산 38명, 경남FC 37명 순이다. 충북청주는 29명으로 K리그 1·2 통틀어 가장 선수가 적다.

22세 이하(U22) 선수는 지난해보다 3명 늘어난 280명이다. K리그1 169명, K리그2 111명으로 대구FC가 가장 많은 25명의 U22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K리그2에서는 충남아산이 38명의 선수 중 15명을 U22로 채웠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5명이다.

K리그 유스 출신 선수는 K리그1 172명, K리그2 145명 등 총 317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비 8명이 줄어든 수치다.

수원이 가장 많은 19명의 유스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광주는 7명, 전남은 3명이 유스시스템을 거쳤다.

준프로 계약을 통해 K리그에 도전하는 '고교생 K리거'는 강민우(울산), 김명준(포항), 윤도영(대전), 양민혁(강원), 고종현·곽성훈·김성주·임현섭·박승수(이상 수원), 장석훈(서울이랜드)으로 총 10명이다.

특히 양민혁은 개막 2경기 만에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무서운 신예로 떠올랐다. 양민혁은 지난 2일 제주와의 프로 데뷔전에서 도움을 기록한 데 이어 10일 광주원정경기에서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벼락골을 넣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한편 시즌 중 추가선수등록은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5주간 이뤄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